

조경수 생산의 특징과 금후 과제

-최근 15년간의 통계분석을 중심으로-



백을선
임업연구원 산림자원부

1. 서언

21세기는 지역이나 도시발전의 안전성과 쾌적성의 확보를 위하여 수목의 기능들이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지방자치제의 실시 이후, 각 지자체들은 푸르름이 가득한 지역환경의 실현을 목표로 각 지역의 개성을 살린 녹색계획들이 책정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제는 생활경제의 활동공간을 미화하는 차원의 조경수 식재뿐아니라, 국민의 정주공간으로서의 지역을 삶의 질을 보장하는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데 중점이 옮겨질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조경수는 지방색을 살린 향토수종의 사용

이 많지 못하고, 특정수종에 편중되는 경향이 많다. 또한 조경수시장의 시장정보체계의 부재로 인하여 수종별 품귀 및 과다 편중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국토를 쾌적하고 조화롭게 가꾸기 위해서는 조경수생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소재를 개발하여 국민들이 요구하는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정량의 생산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필요할 것이다.

그러한 관점에서 80년대 이후 조경수 생산동향의 특징을 살펴보고, 21세기의 전망을 통하여 조경수생산업의 과제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2. 분석자료와 방법

분석에 필요한 조경수생산량 자료는, 산림청에서 발간한 임업통계연보들을 사용하였다.

조경수 생산동향의 특징을 분석하기 위하여, 1982년부터 1997년까지의 기간을 1982~1987년, 1988~1992년, 1994~1997년의 3기간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분석한 내용에는 기간동안의 생산공급가능량의 증가율이 책임에도 불구하고, 전기간동안의 증가율이 정으로 나타난 것은, 1993년의 통계자료가 없고, 1994년에 관련 통계가 새로이 정비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분석을 위하여 조경수목을 교목·중목·관목 및 침

〈표 1〉 분석을 위한 수종구분

구분	교목	중목	관목
침엽수	가문비류, 곰솔, 구상나무, 리기다소나무, 섬잣나무, 잣나무, 전나무, 주목측백나무류, 편백나무류, 향나무류, 히말라야시다, 화백나무류	소철	-
상록활엽수	후박나무	취동나무, 동백나무류, 광나무	사철나무류, 영산홍, 종려, 철쭉류, 팔손이, 치자나무류, 회양목
낙엽활엽수	느티나무, 단풍나무류, 모과나무, 목련류, 버즘나무, 벚나무류, 은행나무, 조팝나무	무궁화류, 무화과, 배롱나무	개나리

업수·활업수(상록활업수·낙엽활업수)·기타수종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표 1).

3. 연간공급가능량 및 생산증가율 가. 교목·중목·관목별

1982년부터 1997년까지의 기간동안에 평균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조경수 물량은 매년 약 75백만본 정도였다. 1982~1987년에는 약 48천본, 1988~1992년에는 약 63천본, 1994~1997년에는 15만본 정도였다.

이 기간에 공급할 수 있는 조경수 물량은 교목과 관목이 약 35%, 32%로서 약 1/3씩을 차지하고 있지만, 중목의 비율은 15% 정도로서 크게 낮았다. 또한 이 기간동안 공급가능한 조경수의 물량은 평균적으로 보아 매년 약 86%씩 증가하였는데 증가폭은 중목이 가장 컸던 반면, 교목은 증가율이 평균보다 낮았다(표 2).

나. 침엽수 및 활엽수별

1982년부터 1997년까지의 기간동안에 매년 생산할 수 있는 조경수 약 75백만본중 침엽수는 19.1%, 활엽수는 62.5%, 기타가 18.4%였다. 또한 이 기간 동안 활엽수는 상록활엽수가 38.0%, 낙엽활엽수가 24.5%를 차지하였다.

이 중 상록활엽수는 연평균 12.9%의 상승률로 가장 많은 성장율을 나타내었으며, 낙엽 활엽수 약 8.8%, 침엽수 약

2.0%의 순이었다(표 3). 특히 조경수의 총공급물량 중 침엽수의 공급물량은 1982~1987년의 23.1%에서 1988~1992년에는 21.3%, 1994~1997년에는 16.1%로 크게 감소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것은 조경수목의 선정에 있어서도 침엽수보다는 활엽수를 중시하는 시대의 흐

름과 껍을 같이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1) 침엽수

이 기간동안 침엽수는 크게 감소하였다. 본수는 교목이 97%였으며, 중목은 3%에 불과하였다(표 4).

이를 수종별로 보면 전체 조경수중 침엽수류가 차지하는

〈표 2〉 조경수의 크기별 연간공급가능량 및 생산증가율 추이

구분	기간	합계	교목	중목	관목	기타
물량(천본)	'82~'87	47,821	16,793	9,514	16,506	5,008
	'88~'92	62,770	20,260	11,252	21,271	9,986
	'94~'97	150,060	56,238	15,068	43,536	35,218
	'82~'97	75,063	26,688	10,851	23,721	13,803
비율(%)	'82~'87	100.0	35.1	19.9	34.5	10.5
	'88~'92	100.0	32.3	17.9	33.9	15.9
	'94~'97	100.0	37.5	10.0	29.0	23.5
	'82~'97	100.0	35.6	14.5	31.6	18.4
증가율(%)	'82~'87	2.9	-9.8	37.5	18.6	-5.1
	'88~'92	5.4	3.8	7.1	0.6	20.6
	'94~'97	-0.7	-2.0	-4.6	0.8	1.8
	'82~'97	8.6	5.6	17.1	10.9	10.1

〈표 3〉 조경수의 침엽별 연간공급가능량 및 생산증가율 추이

구분	기간	합계	침엽수	낙엽활엽수	상록활엽수	기타
물량(천본)	'82~'87	47,821	11,047	14,321	17,445	5,008
	'88~'92	62,770	13,372	11,764	27,648	9,986
	'94~'97	150,060	24,138	37,419	53,284	35,218
	'82~'97	75,063	14,356	18,401	28,503	13,803
비율(%)	'82~'87	100.0	23.1	29.9	36.5	10.5
	'88~'92	100.0	21.3	18.7	44.0	15.9
	'94~'97	100.0	16.1	24.9	35.5	23.5
	'82~'97	100.0	19.1	24.5	38.0	18.4
증가율(%)	'82~'87	2.9	-6.5	-2.8	20.8	-5.1
	'88~'92	5.4	-5.3	11.5	3.4	20.6
	'94~'97	-0.7	-13.0	2.7	1.7	1.8
	'82~'97	8.6	2.0	8.8	12.9	10.1

〈표 4〉 조경수 침엽수류의 연간 공급가능량 및 증가율 추이

기간	합계			교목			중목		
	물량(천본)	비율(%)	증가율(%)	물량(천본)	비율(%)	증가율(%)	물량(천본)	비율(%)	증가율(%)
'82~'87	11,047	100.0	-6.5	10,757	97.4	-7.1	291	2.6	34.0
'88~'92	13,372	100.0	-5.3	12,816	95.8	-5.5	556	4.2	-0.8
'94~'97	24,138	100.0	-13.0	23,717	98.3	-13.2	420	1.7	5.2
'82~'97	14,356	100.0	2.0	13,968	97.3	1.9	388	2.7	10.1

공급가능량의 비율이 1982년의 35.5%에서 서울올림픽이 개최된 1988년에는 24%, 1997년에는 약 12%로 크게 저하하였다. 리기다, 섬잣, 잣나무, 전나무등 침엽수는 전체적으로 비율이 감소되었으며, 특히 향나무의 감소폭이 가장 컸다(표 5).

(2) 상록활엽수

이 기간동안 상록활엽수의 공급가능량은 크게 증가하였다. 1982~87년동안 평균 연간

공급 가능량은 약 1,750만본이 었지만 94~97년 기간동안에는 53백만본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 중 관목이 75%, 중목이 23.5%였으며 교목은 1%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증가율은 해가 지나면서 크게 감소하였다(표 6).

이를 전체 조경수에서 차지하는 상록활엽수의 공급가능량을 살펴 보면, 82년의 21%대에서 1988년에는 48%대로피크를

기록하다가 97년에는 37%를 차지하고 있다. 이를 수종별로 보면 동백, 영산홍 철쭉 등 화목류는 크게 증가한 반면, 사철 나무나 회양목 등 비화목류는 감소경향을 나타내었다(표 7).

(3) 낙엽활엽수

이 기간동안 낙엽활엽수의 공급가능량도 상록활엽수와 마찬가지로 크게 증가하여 연평균 18백만본에 달하였다. 1982~87년동안 평균 연간공급가능

<표 5> 조경수 침엽수의 수종별 공급가능량 추이

년 도	합 계		가문비류		곰 솔		구상나무		리기다소나무		섬잣나무		잣나무	
	물 량	비 율	물 량	비 율	물 량	비 율	물 량	비 율	물 량	비 율	물 량	비 율	물 량	비 율
1982	15,207	35.5	147	0.3	23	0.1	5	0.0	448	1.0	209	0.5	2,057	4.8
1983	9,990	20.0	360	0.7	35	0.1	10	0.0	691	1.4	211	0.4	1,770	3.5
1984	9,478	18.1	435	0.8	46	0.1	204	0.4	315	0.6	192	0.4	1,267	2.4
1985	10,108	22.3	723	1.6	886	2.0	589	1.3	475	1.0	197	0.4	806	1.8
1986	10,607	22.6	563	1.2	902	1.9	234	0.5	402	0.9	227	0.5	1,402	3.0
1987	10,895	22.1	477	1.0	150	0.3	379	0.8	64	0.1	176	0.4	2,613	5.3
1988	13,235	24.0	526	1.0	144	0.3	1,200	2.2	54	0.1	213	0.4	1,841	3.3
1989	16,397	25.8	318	0.5	130	0.2	2,123	3.3	61	0.1	205	0.3	1,760	2.8
1990	14,030	23.6	385	0.6	186	0.3	2,910	4.9	69	0.1	200	0.3	1,167	2.0
1991	12,547	18.5	359	0.5	244	0.4	2,538	3.7	168	0.2	153	0.2	1,762	2.6
1992	10,652	15.7	671	1.0	344	0.5	1,023	1.5	180	0.3	181	0.3	1,548	2.3
1994	30,896	20.6	4,480	3.0	2,048	1.4	3,997	2.7	38	0.0	280	0.2	1,844	1.2
1995	23,571	15.9	1,144	0.8	1,578	1.1	2,909	2.0	283	0.2	209	0.1	1,710	1.2
1996	21,723	14.0	739	0.5	1,668	1.1	1,192	0.8	562	0.4	237	0.2	2,719	1.7
1997	20,363	13.9	1,004	0.7	2,952	2.0	825	0.6	521	0.4	312	0.2	2,939	2.0

년 도	전나무		주 목		측백나무류		편백나무류		향나무류		히말라야시다		화백나무류		소 철	
	물 량	비 율	물 량	비 율	물 량	비 율	물 량	비 율	물 량	비 율	물 량	비 율	물 량	비 율	물 량	비 율
1982	397	0.9	419	1.0	942	2.2	579	1.4	9,083	21.2	726	1.7	70	0.2	102	0.2
1983	212	0.4	421	0.8	576	1.2	332	0.7	4,769	9.5	441	0.9	15	0.0	147	0.3
1984	141	0.3	554	1.1	880	1.7	131	0.3	4,360	8.3	496	0.9	11	0.0	415	0.8
1985	160	0.4	953	2.1	627	1.4	157	0.3	3,883	8.6	293	0.6	105	0.2	255	0.6
1986	184	0.4	1,819	3.9	334	0.7	243	0.5	3,620	7.7	262	0.6	11	0.0	383	0.8
1987	153	0.3	2,040	4.1	617	1.3	260	0.5	3,268	6.6	247	0.5	9	0.0	443	0.9
1988	678	1.2	3,331	6.0	581	1.1	414	0.8	3,340	6.1	313	0.6	51	0.1	550	1.0
1989	1,057	1.7	4,065	6.4	616	1.0	782	1.2	4,393	6.9	197	0.3	67	0.1	624	1.0
1990	348	0.6	4,025	6.8	394	0.7	542	0.9	2,846	4.8	287	0.5	65	0.1	605	1.0
1991	291	0.4	2,993	4.4	412	0.6	283	0.4	2,568	3.8	272	0.4	36	0.1	468	0.7
1992	162	0.2	2,981	4.4	357	0.5	225	0.3	2,139	3.1	269	0.4	40	0.1	533	0.8
1994	680	0.5	7,723	5.2	927	0.6	2,464	1.6	3,525	2.4	2,411	1.6	104	0.1	375	0.2
1995	281	0.2	5,923	4.0	1,811	1.2	1,953	1.3	2,676	1.8	2,508	1.7	63	0.0	522	0.4
1996	455	0.3	5,121	3.3	1,911	1.2	2,280	1.5	1,952	1.3	2,432	1.6	105	0.1	351	0.2
1997	508	0.3	4,447	3.0	1,918	1.3	410	0.3	3,120	2.1	910	0.6	62	0.0	436	0.3

〈표 6〉 조경수 상록활엽수의 연간 공급가능량 및 증가율 추이

구분	기간	합계	교목	중목	관목
물량(천본)	'82~'87	17,445	232	3,391	13,822
	'88~'92	27,678	259	8,370	19,018
	'94~'97	53,284	948	11,269	41,067
	'82~'97	28,053	405	6,705	21,393
비율(%)	'82~'87	100.0	1.3	19.4	79.2
	'88~'92	100.0	0.9	30.3	68.8
	'94~'97	100.0	1.8	21.1	77.1
	'82~'97	100.0	1.4	23.5	75.1
증가율(%)	'82~'87	20.8	17.1	35.4	18.8
	'88~'92	3.4	-4.0	9.6	1.1
	'94~'97	1.7	33.1	0.3	1.5
	'82~'97	12.9	17.3	19.4	11.6

량은 약 1,430만본이었지만 94~97년 기간동안에는 37백만 본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 중 교목이 67%—중목이 20%, 관목이 13%를 차지하였는데, 생산공급 증가율은 중목이 12.4%로 가장 높았고, 교목이 9.0%, 관목이 3.9%였다(표 8).

이를 전체 조경수에서 차지하는 낙엽활엽수의 공급가능량을 살펴 보면, 82년의 26%대에

〈표 7〉 조경수 상록활엽수의 수종별 공급가능량 추이

년도	합계		후박나무		귀퉁나무		광나무		동백나무류		사철나무류	
	물량	비율	물량	비율	물량	비율	물량	비율	물량	비율	물량	비율
1982	8,906	20.8	124	0.3	267	0.6	198	0.5	392	0.9	1,919	4.5
1983	11,917	23.8	260	0.5	1,219	2.4	697	1.4	605	1.2	1,711	3.4
1984	20,380	39.0	257	0.5	2,154	4.1	740	1.4	817	1.6	2,619	5.0
1985	19,719	43.4	184	0.4	3,549	7.8	440	1.0	817	1.8	1,048	2.3
1986	20,808	44.3	291	0.6	2,977	6.3	212	0.5	1,359	2.9	1,064	2.3
1987	22,939	46.5	274	0.6	1,795	3.6	263	0.5	1,847	3.7	1,131	2.3
1988	26,506	48.1	289	0.5	1,693	3.1	3,412	6.2	1,689	3.1	1,246	2.3
1989	25,315	39.8	267	0.4	2,563	4.0	575	0.9	2,510	3.9	1,518	2.4
1990	24,579	41.4	129	0.2	3,663	6.2	564	1.0	2,357	4.0	1,234	2.1
1991	31,537	46.5	366	0.5	6,501	9.6	3,178	4.7	3,356	4.9	961	1.4
1992	30,302	44.6	245	0.4	2,836	4.2	3,591	5.3	3,366	5.0	1,876	2.8
1994	52,195	34.8	576	0.4	4,592	3.1	1,124	0.7	6,500	4.3	3,037	2.0
1995	47,553	32.1	931	0.6	2,281	1.5	1,410	1.0	6,275	4.2	3,023	2.0
1996	58,480	37.6	927	0.6	3,006	1.9	1,674	1.1	5,905	3.8	2,418	1.6
1997	54,908	37.4	1,358	0.9	3,841	2.6	1,786	1.2	6,684	4.6	2,712	1.8

년도	영산홍		종려		철쭉류		치자나무류		팔손이		희양목	
	물량	비율	물량	비율	물량	비율	물량	비율	물량	비율	물량	비율
1982	507	1.2	191	0.4	1,303	2.4	281	0.7	20	0.0	3,972	9.3
1983	682	1.4	218	0.4	3,243	6.5	119	0.2	192	0.4	2,971	5.9
1984	1,312	2.5	463	0.9	6,875	13.2	1,311	2.5	347	0.7	3,485	6.7
1985	1,745	3.8	191	0.4	6,461	14.2	1,016	2.2	254	0.6	4,014	8.8
1986	1,989	4.2	228	0.5	6,686	14.2	279	0.6	232	0.5	5,492	11.7
1987	2,172	4.4	248	0.5	8,545	17.3	272	0.6	94	0.2	6,299	12.8
1988	2,443	4.4	300	0.5	7,470	13.6	290	0.5	85	0.2	7,589	13.8
1989	1,885	3.0	408	0.6	7,906	12.4	227	0.4	74	0.1	7,384	11.6
1990	2,866	4.8	444	0.7	7,273	12.2	92	0.2	44	0.1	5,912	10.0
1991	2,046	3.0	558	0.8	8,721	12.8	183	0.3	108	0.2	5,558	8.2
1992	1,570	2.3	569	0.8	10,921	16.1	229	0.3	42	0.1	5,056	7.4
1994	4,944	3.3	523	0.3	21,892	14.6	269	0.2	19	0.0	8,719	5.8
1995	4,881	3.3	484	0.3	19,897	13.4	1,025	0.7	27	0.1	7,319	4.9
1996	4,611	3.0	492	0.3	28,869	18.6	960	0.6	19	0.0	9,599	6.2
1997	4,900	3.4	651	0.4	24,178	16.5	173	0.1	23	0.0	8,514	5.8

〈표 8〉 조경수 낙엽활엽수의 연간 공급가능량 및 증가율 추이

구분	기간	합계	교목	중목	관목
물량(천본)	'82~'87	14,321	5,805	9,514	16,506
	'88~'92	11,764	7,184	11,252	21,271
	'94~'97	37,419	31,573	15,068	43,536
	'82~'97	18,401	12,315	10,851	23,721
비율(%)	'82~'87	100.0	40.5	40.7	18.7
	'88~'92	100.0	61.1	19.8	19.2
	'94~'97	100.0	84.4	9.0	6.6
	'82~'97	100.0	66.9	20.4	12.6
증가율(%)	'82~'87	-2.8	-15.7	41.5	17.1
	'88~'92	11.5	22.0	1.5	-2.9
	'94~'97	2.7	7.1	-19.0	-9.5
	'82~'97	8.8	9.0	12.4	3.9

서 97년에도 26%를 차지하고 있다. 이를 수종별로 보면 느티나무, 단풍나무, 벚나무 등이 크게 증가한 반면, 은행나무 등은 감소경향을 나타내었다(표 9).

4. 조경수의 수요전망

조경수의 생산변화를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조경수와 같은 환경소재의 생산은 인구증가나 경제성장, 환

〈표 9〉 조경수 낙엽활엽수의 수종별 공급가능량 추이

년도	합계		느티나무		단풍나무류		모과나무		목련류		버즘나무	
	물량	비율	물량	비율	물량	비율	물량	비율	물량	비율	물량	비율
1982	11,155	26.0	291	0.7	2,586	6.0	138	0.3	517	1.2	48	0.1
1983	23,901	47.7	354	0.7	1,482	3.0	114	0.2	376	0.8	98	0.2
1984	17,214	32.9	328	0.6	1,176	2.3	160	0.3	318	0.6	322	0.6
1985	12,560	27.7	170	0.4	679	1.5	113	0.2	378	0.8	361	0.8
1986	11,420	24.3	198	0.4	816	1.7	63	0.1	340	0.7	318	0.7
1987	9,672	19.6	219	0.4	751	1.5	70	0.1	313	0.6	280	0.6
1988	9,664	17.5	697	1.3	1,230	2.2	78	0.1	298	0.5	275	0.5
1989	11,130	17.5	2,071	3.2	1,553	2.4	118	0.2	262	0.4	319	0.5
1990	10,691	18.0	2,625	4.4	2,673	4.5	103	0.2	396	0.7	382	0.6
1991	12,393	18.3	2,480	3.7	2,742	4.0	69	0.1	392	0.6	378	0.6
1992	14,940	22.0	2,702	4.0	3,999	5.9	278	0.4	475	0.7	381	0.6
1994	36,343	24.2	7,329	4.9	12,592	8.4	373	0.2	1,400	0.9	322	0.2
1995	37,218	25.1	6,302	4.3	14,986	10.1	441	0.3	1,432	1.0	250	0.2
1996	36,782	23.7	6,003	3.9	14,905	9.6	647	0.4	1,398	0.9	231	0.1
1997	39,335	26.8	6,489	4.4	16,660	11.4	612	0.4	1,408	1.0	229	0.2

년도	벚나무류		은행나무		조팝나무		무궁화류		무화과		배롱나무		개나리	
	물량	비율	물량	비율	물량	비율	물량	비율	물량	비율	물량	비율	물량	비율
1982	562	1.3	5,220	12.2	4	0.0	384	0.9	33	0.1	83	0.2	1,291	3.0
1983	412	0.8	3,994	8.0	11	0.0	13,296	26.6	308	0.6	198	0.4	3,269	6.5
1984	324	0.6	3,120	6.0	11	0.0	7,640	14.6	101	0.2	281	0.5	3,431	6.6
1985	290	0.6	2,334	5.1	121	0.3	5,287	11.6	126	0.3	177	0.4	2,524	5.6
1986	280	0.6	2,335	5.0	86	0.2	3,977	8.5	86	0.2	179	0.4	2,743	5.8
1987	211	0.4	2,109	4.3	42	0.1	2,622	5.3	75	0.2	136	0.3	2,845	5.8
1988	241	0.4	1,594	2.9	33	0.1	2,371	4.3	116	0.2	151	0.3	2,579	4.7
1989	301	0.5	1,454	2.3	52	0.1	2,377	3.7	54	0.1	215	0.3	2,408	3.8
1990	241	0.4	1,364	2.3	46	0.1	1,171	2.0	5	0.0	297	0.5	1,387	2.3
1991	365	0.5	1,217	1.8	86	0.1	1,839	2.7	2	0.0	228	0.3	2,595	3.8
1992	704	1.0	1,216	1.8	85	0.1	2,550	3.8	53	0.1	200	0.3	2,297	3.4
1994	2,943	2.0	2,688	1.8	167	0.1	4,882	3.3	42	0.0	524	0.3	3,082	2.1
1995	4,461	3.0	3,806	2.6	420	0.3	2,047	1.4	15	0.0	551	0.4	2,507	1.7
1996	4,912	3.2	3,648	2.3	479	0.3	2,092	1.3	11	0.0	455	0.3	1,999	1.3
1997	4,290	2.9	3,709	2.5	762	0.5	2,129	1.5	19	0.0	745	0.5	2,287	1.6

경에 대한 인식의 변화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이다.

지난 30여년 간의 경제발전은 우리들에게 많은 변화를 주어 왔다. 1960년대 이후 수차례에 걸쳐 추진된 경제개발과 국토개발계획의 성공적 추진으로 우리나라는 연평균 6~9%의 고도경제성장을 이루었으며 국가발전의 기반도 크게 확충되었다. 인구 4400만명이 살 수 있는 주거공간과 산업생산이 가능한 사회간접시설이 구축되었다.

이러한 짧은 기간동안에 이루어진 고도경제성장은, 도시내 주거공간에 많은 수목의 식재 등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기도 하였다. 아파트건설 등으로 인한 도시내 숲의 상실과 더불어 새로운 녹지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많은 조경수목이 식재되어 왔다.

현재는 IMF의 영향으로 경제가 다소 침체되어 있기는 하지만, 2010년의 소득은 현재의 2배 이상, 인구는 50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2011년까지의 약 2,300km²의 도시적용지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체의 정착으로 지역개발 수요도 확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게다가 경제발전으로 인하여 1988년의 서울올림픽 수많은 국제적인 행사가 유치되어 조경수목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

였으며, 다가오는 2002년의 월드컵 개최를 앞두고 있다.

이와같은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국민의 삶의 질에 대한 욕구가 증대됨에 따라 친자연적인 환경중시 경향이 강조되면서 국민의 생활패턴도 전원주택이나 근자연생활을 선호하는 등 친자연적인 성향이 중시될 것이며, 이러한 흐름과 궤를 같이하여 조경수의 수요는 21세기에 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5. 결언-조경수생산업의 과제

조경수생산업은 토지를 이용하는 산업이다. 특히 교목생산을 목표로 하는 경영은 장기간 동안 대면적의 토지를 점유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유향토지를 없애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생산 포장을 집중화하고, 작업효율을 높여 토지생산성의 향상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로 조경수시장은 동질적인 요구를 지닌 수요자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다양한 이질적인 요구를 지닌 소비자로 구성된 부분적 시장들의 집합체이다. 우리나라에서 조경수의 유통은 공공수요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므로, 금후 조경수의 공공수요를 철저히 분석하고, 개인소비 등 민간수요를 감안한 생산계획의 수립이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조경수의 시장수요가 다양화되고 있으므로 새

로운 조경용 식물의 개발과 틈새시장들의 개척을 동시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

셋째로 조경수생산업은 자본투하기간이 길며 자본회수율이 매우 낮은 것이 특징이다. 교목생산을 예로 들면 묘목구입비, 포장정리비, 이식비 등 많은 초기투자비용이 발생한다. 따라서 될 수 있는 한 보다 저리의 장기자금 조달과 계획을 도모하도록 하고, 동시에 보다 부가가치가 높은 조경수를 생산하도록 하며, 생산기간의 단축이 가능하도록 기술개발을 도모한다.

넷째로 조경수생산업은 입지 환경에 크게 영향을 받는 토지생산업이다. 따라서 모든 조경수 개별경영에서 주력 수종은 기본적으로 토질이나 기후에 적합하고, 가장 잘 재배할 수 있는 수종이 선정되고 있다. 또한 교목생산에는 대면적의 생산포장이 확보될 수 있고, 주기적으로 고용노동력의 조달이 가능한 입지환경이 필요하다.

앞으로는 지역특성을 무시한 획일적인 식재가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조경수 생산체제가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조경수 생산에서도 토지, 노동, 자본 및 시장에 대한 접근이 가능한 조경수를 개발하고, 이러한 수종들을 가장 잘 조합하여 생산하는 경영전략의 구축 및 관리가 중요할 것이다. **조경수**